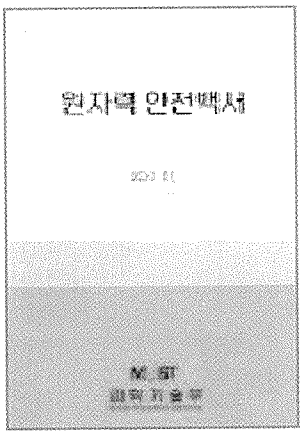
과 학 기 술 부

- 원자력백서 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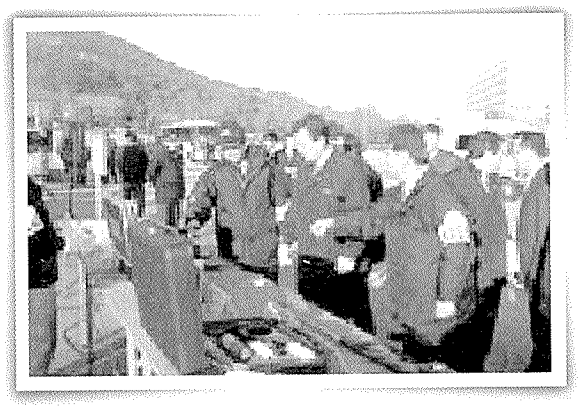


과학기술부는 원자력 안전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투명한 원자력안전 규제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백서를 발간하여 왔다. 그동안 동 백서를 원자력관련기관에 무상 공급하여 온 관계로 원자력안전규제 활동에 대한 국민의 정보근접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국가예산으로 발간되는 동 백서의 특정인 무상 공급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을 감안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5,000원)으로 공급한다고 한다.

구입문의 : (주) 교보문고 (02-397-3466 이맹수)

방사능 테러 모의훈련

방사능 테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훈련이 11월 30일(금)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협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등 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훈련에서는 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방사성 동위원소(코발트-60)를 운송하던 중 테러범이 운반차량에 폭탄을 투척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방사능 오염 제염 및 방사능 응급처치 등을 시연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방사능 방재 비상대응시스템 구축 -

방사능방재종합상황실이 준공됨으로써 원자력시설 사고 및 방사선비상사고 발생시 초기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상대응시스템이 구축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김세종)은 12월11일 유희열과기부차관, 김세종원장, 유관기관장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기술원내 방사선안전센터 방사능방호기술 지원본부에서 방사능방재종합상황실 준공식을 가졌다.

방사능방재 종합상황실은 평상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 분석하고 사고시 외부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영향 평가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에 대처함으로써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구축된 방사능방재 종합상황실은 지난 6월 준공된 방사선안전센터 건물내에 기존의 방사능방재대책 기술지원 전산시스템(CARE)과 다기능 영상시스템을 완비하고 과기부등 방사능 방재유관기관과 영상 및 통신망을 연계해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방사능방재 종합상황실은 최신첨단 정보기술을 원자력시설 방재기술에 접목시키고 중앙정부와 방재 유관 기관 등에 대한 효과적인 방사선방호 기술지원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원자력시설 사고에 대비한 종합감시망 역할을 하게 된다.

방사능방재 종합상황실은 연면적 157.7평규모로 지난 6월 방사선안전센터 건물 완공에 이어 지난 9월부터 16억2000여만원을 투입해 내부시스템 마무리로 이번에 준공됐다.

이와 함께 방사선안전센터 건물에는 국가방사선대응센터, 지진 감시시설등이 함께 입주해 국내 방사능재해대책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

- 원자력안전심포지움 2001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최양우)은 지난 11월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과학기술부 후원하에 국내외 전문가 약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원자력안전심포지움 2001' 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움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정부, 산학연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정보교류를 통해 향후 원자력안전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개최 첫날인 22일에는 '원자력안전성 선진화' 와 관련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방안' 등의 특강과, '원전 운영현황 및 선진화', ' 원자력안전규제 체계 발전방향' 및 ' 원자력안전문화 활성화 정책방향' 등 의 주제 발표가, 둘째날인 23일에는 최근 법제화된 '가동원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과 관련해 '주기적 안전성평가 발전방향' 등의 특강과 '주기적 안전성평가 추진 현황 및 경험', '위험동 정보활용 국내기반 구축방향'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 연구용원자로「하나로」워크샵 2001 개최 -

국내 유일의 연구용원자로「하나로」이용을 극대화시키고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로 워크샵이 2001년 12월 14일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장인순) 원자력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샵은 하나로 운영자인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산 · 학 · 연 이용자들간에 상호 정보교환 및 이해증진을 통하여 하나로 이용을 극대화시키고, 연구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년으로 두번째를 맞는 이번 워크샵은 종합분과, 기술분과, 그리고 패널 토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종합분과는 중성자빔 이용,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험, 중성자 이용 암치료 등 5개의 주요 이용분야로 구분되어 분야별 추진 방향 및 이용계획에 대하여 발표되었고, 기술분과에서는 원자력기반확충사업으로 수행된 2000년도 하나로 공동이용활성화사업의 연구성과를 포함하여 하나로를 이용한 연구성과를 4개의분과로 나누어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또한 "하나로 이용활성화를 통하여 연구기반 강화"를 주제로 하나로 관계자, 하나로 이용 관련 전문연구회장 등이 참석하는 패널토의가 있었으며, 하나로 운영 및 이용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1999년말부터 하나로 운영위원회, 하나로이용자협의회 등 6개 분야의 하나로전문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하나로공동이용 활성화 사업도 3년째 진행중에 있다.

원자력병원

- 제5회 원자력병원 핵의학 심포지움 개최 -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제 중 핵의학 분야 학술대회인 "제 5회 원자력병원 핵의학 심포지움"이 2001년 12월13일 원자력병원(원장 심윤상)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움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핵의학 분야에 참여하는 의료 ,교육기관의 여러 전문가들이 상호 정보교환 및 이해증진을 통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연구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자력병원, 서울중앙병원, 서울대, 성균관대 등 10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심포지움에서 새로운 방사성 의약품의 개발, 세포의 대사과정 등 암 연구를 비롯하여 21세기 첨단의학분야로 예상되는 분자생물학적 영상화를 주제로 22개 논문이 발표되었다.

핵의학은 양전자단층촬영술 등 생체의 기능 영상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담당하고 국민의 보건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방사선의학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부터 방사선의학분야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방사선이용분야에서 분리 · 신설하여 별도의 기술분야로 원자력연구 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